

# 선미촌 문화재생, 선진 교육모델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서 획득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지역 중심 문화예술공간 변화시켜

국내에서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만들고 있는 전주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가 23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 회관에서 열린 2019 유네스코 ESD 한마당 행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서를 받았다.

국내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인증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ESD 실천사례를 발굴해 국내·외에 소개해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오는 2022년 7월까지 3년간 ‘선미촌 문화재생프로젝트’ 홍보물 등에 ESD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ESD인증 획득은 유네스코 각종 국제공모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공모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시와 민간단체가 선미촌정비관협의회를 구성해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강제철거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문화재생을 통해 도시공간의 기능을 바꿔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평가단은 “전주시가 여성 인권의 사각 지대인 선미촌을 여성과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는 선미촌 지역의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도

심 재생 프로그램”이라며 “실질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학습 활동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계숙 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여성인권단체, 주민, 문화예술인 등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지혜를 모았기에 선미촌의 오늘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말처럼 전주시의 어두운 과거였던 선미촌을 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태풍 영향으로 논바닥에 누운 벼



논과 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날인 23일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일대의 논이 제17호 태풍 '타이파'가 물고 온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벼가 논바닥에 누워 있다.

##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최선 다할 것”

### 홍영근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취임

전북소방본부는 23일 전북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제16대 전북소방본부장으로 홍영근(53) 소방준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 본부장은 이날 취임 행사 등을 생략하고 동대문 평화시장 화재 발생 관련 도내 유사 사고 예방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마부

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자세로 끊임없는 노력과 진취적인 정책 추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홍 본부장은 1990년 2월 소방 간부 9기로 소방에 입문한 이후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경기도 여주소방서장,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소방청 화재 대응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탁월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와 뛰어난 리더십을 갖춰 조직 내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전주시설공단 27일 ‘낭만영화제’ 개최

### ‘국가대표’ 무료 상영 간식·맥주 등도 제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27일 오후 7시 화산체육관 시민행복관에서 제3회 낭만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무료로 상영되는 영화는 ‘국가대표’로 대한민국 최초로 결성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최후유물 동계올림픽 출전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하정우, 성동일, 김지석, 김동욱, 최재환 등 인기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12세 관람가로 아동도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해 가족이 모두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화는 당일 오후 7시 25분부터 상영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식전행사로 전문 댄스팀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만든 간식과 함께 맥주도 무료로 제공된다. 종교개혁 기념 이벤트를 통해 입실 샴쌍둥이 등의 지역 특산품도 맛볼 수 있다.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돗자리와 가벼운 의류를 챙기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이번 야외 영화 상영은 지난 6월 애니메이션 영화 ‘소나기’ 상영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된 행사다. 공단은 야외 유류공간에서 좋은 영화를 시민과 함께 즐기기 위해 ‘시민행복동 낭만영화제’를 추진하고 있다.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인 시민행복동은 말 그대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공단은 그동안 이곳에서 시 토크와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다.

전성환 이사장은 “시민을 위해 만든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원생까지 확대

### 시, 2학기부터 전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 대상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가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시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에 진학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진학을 도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대출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전주시 홈페이지

(www.jonju.go.kr)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휴학 6학기까지)으로,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생활비 제외)의 2019년도 하반기(7월~12월)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서류제출 적합여부와 재학 및 졸업여부, 대출정보 등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 한국장학재단으로 개인별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다.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한 1159명 중 심사를 통해 총 886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대학원생까지 이자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출이자 지원으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 산하 부서와 전국 대학교, 지역 학생단체,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교육청소년과(063-281-531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민들 “버스노선, 환승 적은 전철노선식 개편 선호”

### 지속가능발전협, 버스노선 시민 디자이너 심화 워크숍

전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환승이 적고 빠른 이동이 가능한 전철노선과 같은 노선개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오창환, 이하 전주지속협)는 지난 21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센터장 조선희)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 노선 시민 디자이너 심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 1차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시민 디자이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원탁회의 결과공유 △노선인별 심화토론 및

선호도 투표 △선호 노선안에 대한 보완점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심화토론을 통해 지난달 열린 1차 원탁회의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전철노선안’과 ‘순바닥노선안’ 중 △적은 환승 횟수 △빠른 이동 △직관적인 노선도 등의 강점이 있는 ‘전철노선안’을 향후 버스노선 개편의 원칙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전철노선안’은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선을 35개 동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노선과 같이 14개 간선노선으로 운

행해 간선간 환승을 최소화하고 직선화하는 안으로, 교통카드와 통신사 데이터 상위 200위 승차차 구간 내에서는 환승 없이 오갈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지속협은 이날 심화 워크숍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은 물론, 향후 전문가 회의와 버스회사 및 노동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꾸준한 대화와 회의를 통해 시민 노선안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이후 오는 11월 중 2차 원탁회의를 통해 버스 노선 개편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주거복지 주요정책 순회설명회

전주시는 지난 20일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제5차 주거복지 주요정책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법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대표가 전주시 사회주택 정책과 사례 소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사회주택 적용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능력,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또,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포함된다.

이 대표는 적용 사례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단차를 제거하거나, 넓은 통로와 슬라이딩 도어, 안전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장애인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주택에 적용한 것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28일 시민자전거 행진

가을을 맞아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이 전주천 물길을 따라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행진은 시민들이 가을의 정취로 물든 전주천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출발해 전주천 자전거길과 한벽교, 전주시청, 교보빌딩사거리까지 지나 전주시자원봉사센터로 돌아오는 약 10km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에코바이크(휴대폰)를 활용하여 자전거 출·퇴근 헬민지 시민 실천 캠페인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행진 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던 공영자전거 시민 체력단 50명을 모집, 공영자전거로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진에 앞서 덕진지역활성센터의 두 바퀴 행복사업단이 자전거 점검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민자전거행진’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3-281-2562) 또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단, 공영자전거 체력 단련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신청 받고 있으며, 공영자전거 행진 참가자는 행진 당일 자전거의 대여·반납을 위해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 전북경찰,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전북경찰이 신임 위원 위촉과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의지 결집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임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위원 5명의 위촉을 위해 개최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방청 소속 지문 기구로 외부인사로 구성,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2년 발족해 경찰청 훈령 810호 근거, 운영 중이다.

위촉된 신임 위원은 한상안 위원(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5명으로 경찰 업무 관련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다.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김기태 위원은 “시민감찰 위원으로 위촉돼 책임감을 느끼고 비위사건 처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자라임 만큼 평상시 더 청렴 의식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된 시민감찰위원회 임기 2년으로 주요비위의 처리 및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심의하고 감찰업무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지문 활동을 하게 된다. /강석훈 기자

##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 마련’... 전북경찰 보안협력위원회 개최

전북경찰이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안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위원 15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 및 전북경찰 치안활동, 보안협력위원회 활동사항 등 탈북민의 정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한주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탈북민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식 청장은 “그동안 탈북민 지원에 앞장서 온 보안협력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공동체 치안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민·경 협력체제를 강화해 탈북민 정착지원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